

‘다빈치 코드’ 영화 감독의 기자회견에 대한 회답.

로마 오프스 데이 홍보실 담당인 Manuel Sanchez Hurtado가 최근 이태리 언론에 나온 기사들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6-5-22

어제 이태리 언론은 Ron Howard 영화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Howard 감독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다는 것은 파시스트한 행동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화를 보러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군국주의화 하는 것이며 군국화는 증오와 폭력을 부른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여러 번 오프스 데이를 언급했습니다. 감독의 구절들은 최근 교회 지도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Howard 감독에게 진정 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한 존중하게 표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황의 현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모욕적입니다. Howard 감독은 가해자를 대표하고 있으며 가톨릭 신자들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권리가 기도 한 본인의 견해를 말하는 것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픽션이라는 경고문을 영화 시작 전에 실어달라는 오프스 데이의 정중한 요

구사항이나 여러 교회지도자 분들의 발표한 말이 폭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고, 불공평한 영화의 묘사들이 증오를 증가 시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Howard 감독은 단지 영화뿐이고 픽션 줄거리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드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영화나 문학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픽션도, 특히 젊은 층 안에서는, 영향을 일으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술의 창의성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감에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SONY사가 미국 정부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 '투인 타워' 공격을 지지하고 후원했다면?. 아니면, 소설책에서 SONY사가 1981년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님의 지도력을 없애기 위해 총을 쏜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다면? . 모두 픽션 이야기입니다. 진지하고 존경 받는 SONY사도 그런 식으로 (영화) 화면에서 비취 진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픽션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표현의 자유는 성스럽습니다' 라는 말로만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화 제작에 참여한 분들은 걱정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오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설과 협박 없이 사랑과 정중하게 답할 것입니다.

침착하게 계속 영화의 이익 계산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경제적인 이득이 유일한 성스러운 자유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책임도 면제 받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많은 돈을 벌어드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SONY사는 명예와

명성을 떨어트리는 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있었던 논쟁이 헛수고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경제적인 이득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픽션의 중요성과 자유를 보호하고 동반하는 책임감이라는 더욱 중대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Manuel Sanchez Hurtado.

로마 오프스 데이 홍보실 국제 언론 담당

로마 오프스 데이 홍보실

.....